

화순군, 횡단보도에 '장수 의자' 설치

화순군이 관내 주요 횡단보도에 '장수 의자'를 설치해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안전한 도로 횡단을 돕고 있다.

군은 최근 교통 혼잡지인 광덕택지 지구 국민은행 교차로, 우체국 사거리 등 횡단보도 12곳에 장수 의자를 설치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장수 의자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을 돕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장수 의자 설치는 보행자 사망사고 통계 분석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보행 사망자가 1675명(40%)이었고 이중 노인 보행 사망자가 906명으로 54%에 달했다.

광덕택지 지구 국민은행 교차로 등 12곳 어르신 등 교통약자 안전한 도로 횡단 도와



또, 노인 보행 사망자의 37%(335명)는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은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에 대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으면 다리랑 허리가 너무 아프다", "(다리가 아프지만) 팔고 다니는 카트에 앉아서 기다리기도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장수 의자를 착안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로횡단을 기다리는 어르신 등 노약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장수 의자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면서 보행 환경 개선,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함평군,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 당부

최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브리오 패혈증이 잇따라 검출되는 가운데, 함평군보건소가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해수온도가 높은 5~9월에 집중 발생하는 질환으로 군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 난 피부가 접촉했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간 질환자(간염, 간경화, 간암), 당뇨환자, 습관성음주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 시 치사율이 5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어패류를 섭취할 시 85도 이상으로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되도록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어패류를 손질할 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칼·도마 등 사용이 끝난 식기도 구역 소독 후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어패류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위험군은 진단직원을 지정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민에 하나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발진 등의 감염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영광군, 2019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

총 46명 선발 예정

영광군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에게 사회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등록금, 자기계발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과 군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방승룡산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의 학생과 영광군에서 실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중도 포기자 포함)은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총 46명으로 이중 23명(50%)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일반 선발 대상자 23명(50%)은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 결과는 7월 5일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선발된 대학생들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4주간(주 5일 하루 6시간) 군청 실과소, 직속기관 및 읍·면 등에서 행정업무 지원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베리류 드시고 젊어지세요"

블루베리·오디·복분자 등 수확철 맞아

장성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블루베리, 오디, 복분자 등의 베리(berry)류가 수확철을 맞았다.

베리류는 필수지방산과 섬유소가 풍부하고 뇌·심혈관장애 예방과 노화방지, 항암효과 등이 뛰어난 웰빙 식품이다.

특히 장성군의 베리류는 일교차가 크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알려진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능력이 우수하고 눈 건강

강에 도움을 준다.

또 대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며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지녔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그대로 먹거나 주스나 잼으로 만들어도 좋다.

또한 '오디'는 라스베라블이 100g당 78mg 가량 들어 있는데 이는 포도보다 156배, 딸콩보다는 780배가 높은 수치로, 항암효과가 뛰어나다. 게다가 세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노화 억제와 간 해독에도 도움을 준다.

'복분자'는 기력을 보호하고 피로감을 개선하며,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많아 항노화 효과가 크다. 또한 성기능을 높이고 갱년기 여성의 여성호르몬을 보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복분자는 생으로 먹거나 원액 또는 농축액을 물에 타 음료로 먹는다.

한편, 장성군은 베리류의 명품화를 도모하고 전국 베리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6년 베리류 명품화단지 조성사업' 등에 17억 원을 지원해 재배면적 확대 및 6차 산업 보원에 힘쓰고 있다.

현재, 800여 농가가 120여 ha의 규모의 베리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수확량은 250여 톤, 농가 소득은 약 30여 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박종영 기자

담양군, '대규모 생물테러 모의 훈련'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담양군이 지난 17일 군 보건소 2층 프로그램실에서 12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19년 대규모 생물테러 대비·대응 훈련'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9월 26일 실

시할 '2019년 대규모 생물테러 대비·대응 훈련'에 앞서 담양경찰서, 담양소방서, 11공수특전여단, 503여단 2대대, 담양사랑병원, 장평한마음병원, 전남감염병관리지원단, 화순전남대병원 등 12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테러기반 시나리오 작성, 기관별 일부 부

여, 훈련장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훈련은 경찰, 소방, 군부대 등이 상호 안전망을 구축, 생물테러 발생 시 현장 대

응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모의 훈련 과정에서 기관별 대응절차 및 준비상황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다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최근 국제적인 테러위험과 미국의 탄저 테러로 생물테러가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 사회 관계기관 간 협업·공조체계 및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로 지역사회 테러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흥군은 지난 14일 올바른 직장 내 성(性)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통합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전문강사 및 연극팀을 초빙하여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유형 및 예방법, 피해 후 대처방법, 남녀 양성평등 의식 심어주기 등 사회적 문제점과 유형별 구체적인

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직장내에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이 이전에는 그 대상이 여성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으로 인해 남성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웠다.

아직 우리 사회는 남성이 다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나주시 여성친화서포터즈, 생활 안전 캠페인

나주시 제2기 여성친화서포터즈는 지난 14일 목서고을시장 일원에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음주 등 교통사고 근절,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가정·학교·직장 내 안전점검 문화 정착 등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30명

으로 구성된 나주시 제2기 여성친화서포터즈는 매달 다중이용시설에서 사회 안전감 및 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단원들은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시정 제도개선사항 제 등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30명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양삼